





나무와 바다의 삶을 써내려간 글씨

이름	Sandoll 칠성조선소
가족	Reguler(1층)
출시	2019년 10월
원도	최승호(칠성조선소)
개발	산돌+칠성조선소(최윤성, 백은정)+아이디브릿지(박재현)
비즈니스	고현남 gusska@sandoll.co.kr
마케팅	김병오 bokim@sandoll.co.kr
디자인	진유성 ys_jin@sandoll.co.kr
엔지니어링	이예본 yebon_1@sandoll.co.kr
매니저	강주연 jooyeon@sandoll.co.kr
디렉터	심우진 simwujin@sandoll.co.kr

산돌 칠성조선소

耳

耳

全

列

音

利

좌도에
스며들
빛—

물거품
애워싼
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들려주던 옛날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중학생
때부터였을 거예요. 당신 앞에 저를
앉혀두고 나면, 한국 전쟁부터
시작하는 생사를 오고 가는
좌노라마들이 움직임 없는 마른
입술 사이로 느릿느릿 흘러나오곤
했습니다. 처음 한번은 몰입감이
굉장했지만 두세 번째부터는
동일한 서사의 반복에 하품이
쏟아졌고, 그 이후로는 저를
청취와 훈계의 대상으로만 삼는
할아버지에게 반항심이
생겨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무얼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전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역사
공부를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라의 건국이나 국가 간의 전쟁,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같은
거대한 역사가 아닌, 지방에서
자식들을 키워가며 가게를 운영한
어느 평범한 사람의 지나온 삶을
역사라고 불려도 될까요.
당시 저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의 역사에 귀를 닫고
진심을 다해 미간을 찌푸렸지만,
그리고 들어간 방 안에서...



sandoll